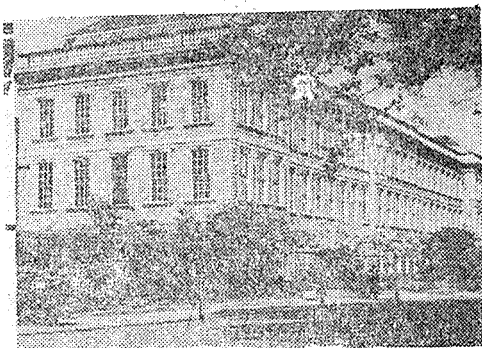


아일랜드, 그 나라와 圖書館

金世翊



트리니티 칼리지 킹즈 라이브러리

깜깜한 밤에 대서양을 건넜다. 어제 저녁 10 시에 뉴욕 케네디 국제 공항을 떠난 아이리시 에어라인의 비행기는 먼동이 틀 무렵에 아일랜드의 사냥 비행장에 내렸다. 목적지는 수도 더블린이지만 도중 사냥에 잠깐 머물러 비행기 정비를 하는 모양이다.

이른 봄이라 비행장에 깔린 잔디가 눈부시고 푸른 언덕에 양떼가 한가로워 보인다. 이제 나는 구라파에 첫발을 디딘 것이다. 거창하고 요란스러운 미국에 비해 여기는 너무도 조용하고 목가적이다. 비행장 주위에 떠엄 떠엄 보이는 낮고 낮은 집들은 미국과는 너무도 대조적이어서 한국에 가까워지는구나 하는 생각이 저절로 나곤 한다. 사냥이란 곳은 홍콩과 같이 물건에 세금이 붙지 않는 곳이기 때문에 비행기에서 내린 관광객들은 비행장 매점에서 저마다 쇼핑을 한다. 그러나 물건 값을 물어보니 아무리 세금이 없더라도 엄청나게 비싸다.

다시 출발한 비행기는 정오경에 더블린에 도착했다. 내가 더블린에 온 목적은 1591년에 창립된 아일랜드 제일가는 대학인 트리니티 칼리지의 「킹즈 라이브러리」와 아일랜드 국립도서관을 보기 위해서다. 이 두 개의 도서관은 미국에서는 볼 수 없는 중세기의 도서관이기 때문이다. 나는 대학에서 도서관사를 강의하고 있기 때문에 옛날 도서관에 대한 관심이 크다. 그러나 지금부터 갈 구라파 여러 나라에도 많은 중세기의 도서관이 있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굳이 아일랜드의 것을 보지 않아도 되지만 나의 여행 예정에도 들어 있지 않은 아일랜드에 온 이유는 또 한 가지가 있다. 그것은 아일랜드는 제임스 조이스의 나라요 오스카 와일드, 버나드 쇼의 나라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W.B. 예이츠의 나라이기도 하다. 이 사람들은 나의 학생시절에 더없이 좋아 하던 작가이며 시인들이었다.

아일랜드란 나라는 영국의 일부인 것 처럼 생각되고 있으나 이 나라는 엄연한 독립국이며 이차대전 때에도 중립을 지킨 소수의 구라파 나라 중의 하나이다. 영어도

통용되기는 하나 아일랜드 말이 따로 있고 화폐도 영국과는 다르다. 민족도 영국은 앵그로 색슨 민족인데 아일랜드는 켈트 민족의 나라다. 사실 그 전에는 영국 본토의 일부였지만 200 년 동안에 걸친 끈질긴 독립투쟁으로 이제는 완전한 독립국이어서 영국과는 지척에 있지만 영국에서 비자 없이는 갈 수 없는 나라다. 더블린 중앙우체국 정면에 독립선언문이 새겨져 있어 마치 우리 나라 파고다 공원 같은 인상을 주고 있다. 그러나 아일랜드가 독립은 되었어도 공업지대인 북 아일랜드는 아직도 영국에 속해 있다. 영국이란 나라는 잉글랜드, 웨일즈, 스코틀랜드 그리고 북 아일랜드의 네 지역으로 형성되어 있다. 아일랜드의 가장 큰 과제는 우리 나라와 같이 남북이 완전히 통일된 나라를 이룩하는 것인데 이것이 아마 용이한 일이 아닌 것 같다. 독립이 되었어도 이 나라는 아직도 영국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이 보인다. 가령 화폐도 따로 있기는 하나 영국 돈이 그대로 통용된다. 아일랜드 돈은 영국에서는 물론 쓸 수가 없다.

이것은 아직도 경제적으로 영국에 많이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블린 거리를 달리는 버스도 런던의 버스와 같이 이중으로 되어 있다. 다만 런던 거리를 달리는 버스는 빨간 색인데 더블린은 녹색이다. 더블린의 중심에 런던에 있는 것과 모양이 꼭 같은 벨슨 파일러 (벨슨 기념탑)가 우뚝 서 있는 것도 기이한 감을 준다.

그러나 이 나라는 가난한 나라다. 구라파에서 스페인과 더불어 가장 가난한 나라가 이곳 아일랜드다. 이 아일랜드 사람들은 게으르기 때문에 청년들이 장가를 가지 않아서 아일랜드 처녀들은 할 수 없이 영국에 건너가서 방직공장 직공이나 식당 웨이트리스가 된다. 그래서 아일랜드는 해마다 인구가 줄어드는 기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더블린에 갔을 때는 마침 그 나라 국회의원 선거 때라서 날마다 스피커 소리가 요란하고 정견발표회가 곳곳에서 열리고 있었다. 고소를 금할 수 없는 것은 그 나라에서도 박수부대니 사구라라는 것이 있어

서 우리 나라와 꼭 같은 현상이 보인다. 아일랜드는 아름답고 정다운 나라다. 인심 좋고 물가가 비교적 싸고 특히 외국 사람에게 여간 친절하지 않다. 내가 머물렀던 메이폴호텔(이름이 호텔이지 아주 작은 집이고 하숙 같은 인상이 들었다)에는 17세 가량의 소녀가 식모 같이 일하고 있는데 멀리 한국에서 온 나의 옷도 빨아주고 단추도 달아 주었다. 불과 4,5일 있는 동안 그 집 식구들과 한 가족처럼 지냈다. 이런 것은 다른 어느 나라에서도 경험할 수 없는 일이었다. 순하고 친절하고 인심 좋은 이 나라를 떠날 때 서운하기 그지없었다. 내가 만약에 외국에 가서 산다면 아일랜드에서 살고 싶다.

트리니티 칼리지의 킹즈 라이브러리를 방문했을 때는 마침 고서 전시회를 하고 있었다. 이 전시회에서 옛날 사본(寫本)으로 된 진기한 책과 Chained Book이라고 불리우는 쇠사슬에 매여 있는 중세기의 책을 처음으로 보았다. 지금과 달라서 옛날에는 책은 하나의 재산이었고 귀중한 보물처럼 취급되었기 때문에 정성스럽게 다루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킹즈 라이브러리의 내부 구조도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도서관과는 아주 딴 것으로서 이용보다 자료의 보존을 더 중요히 생각했다는 것을 쉬이 짐작할 수 있었다. 오늘날 이와 같은 사상은 전적으로 배제되어야 할 일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미국적 사고방식에만 의존하지 않는다면 자료의 보존도 결코 소홀히 할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우리 나라의 고전이 여러 가지 루우트를 타고 국내에서 사라져 가는 것을 생각할 때 더욱 이런 것이 절실히 느껴졌다. 다만 트리니티 칼리지의 킹즈 라이브러리에 소장되고 있는 자료가 잘 이용이 되지 못하고 관광객들에게 보여주는 관광도서관이 되어 버렸다는 것이 섭섭하게 여겨졌다. 지금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책보다도 종이의 질이나 제본 그리고 표지 같은 것이 모두 월등하여 책에 대한 존엄성을 느끼지 않을 수 없는 무게 있는 고서적이 질서 정연하게 배열되어 있는 높은 서가 사이에 경사진 오랜 책상이 단정하게 놓여 있는 분위기가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엄숙한 감을 가지게 한다. 미국식으로 생각하면 도서관이 화려하고 사람들이 실재없이 출입하는 이른바 이용도서관이라야 하겠는데 이 킹즈 라이브러리는 어찌보면 수도원 같은 인상을 주기도 한다. 도서관의 참 모습은 아니겠지만 우리는 오늘날의 활발한 도서관에도 이런 기풍 같은 것은 약간은 있어도 무방하리라고 믿는다.

우리 나라에도 고색창연한 도서관이 더러 있지만 오래 되었다는 사실이 그대로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지는 않는다. 지저분하고 난잡스럽기만 해서 도서관다운

모습이 나올 리 없다.

아일랜드의 시골에 가보면 작으나마 여러 군데에 카네기 도서관이 있다. 카네기가 돈을 벌어서 억만장자가 된 다음에 그는 사회사업에 그의 재산을 아낌없이 쓰게 됐는데 우선 그는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다 교회당을 세웠고 그 다음에는 도서관을 지었고 그리고 학교를 설립했다. 카네기가 젊어서 돈을 벌 때는 수전노의 악명이 높았지만 치부한 다음에 그가 돈을 쓴 것을 보면 분명히 보통사람과는 다른 뛰어난 면이 보인다. 카네기의 생각 속에 도서관이 그렇게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는 사실은 우리로서 감동해 마지 않을 일이다. 일반적으로 미국사람들의 마음속에 자리잡고 있는 도서관에 대한 사상은 우리의 상상보다는 훨씬 높다고 할 수 있다. 대체로 미국사람들은 돈을 많이 벌면 사회사업이나 교육사업에 아낌없이 회사하는 것을 생의 보람으로 여기는 좋은 전통이 있다. 생각해 보면 이런 사상은 기독교에서 온 것 같다. 미국에 가 보면(구라파도 마찬가지이지만) 교회라는 것이 미국시민 생활과 밀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남을 위해서 무엇인가 이바지하겠다는 그들의 인생관의 일면을 도처에서 보고 느낄 수 있었다. 우리 나라에는 아직도 카네기나 뉘푼 같은 대재벌은 없지만 그러나 한국적 수준에서 보면 상당히 치부한 사람들이 있다. 그들이 도서관을 위해 그 재산의 일부를 회사했다는 말은 들은 적이 없다. 우리 나라에서도 카네기 같은 사람이 더러 있어도 좋을 듯한데 아직도 요원한 이야기 같다. 정서가 넘쳐흐르는 아일랜드 공화국의 시골길을 걸으면서 이런 생각에 잠겼다. 밝은 하늘에 흰구름이 꽃송이를 이루고 파란 잔디가 깔린 낮은 언덕에 양들이 배를 지어 풀을 뜯는데 소박한 차림의 목동들의 호각소리가 원시의 건강을 상징하듯 그렇게 울려 퍼지는 이 지구의 끝인 아일랜드의 전원풍경에 도취될 수밖에 없었다. 조용한 나라 아름다운 나라 그리고 정다운 나라이다.

정직하게 말하면 유네스코에서 세밀하게 정해준 나의 여정에는 아일랜드는 제외되어 있었다. 그러기 때문에 내가 아일랜드에 들린 것은 나의 자의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유네스코에서 알면 큰일? 날 일이다. 그러나 미국에서 영국으로 가는 도중에 이 아일랜드에 잠시 들리고 싶은 마음을 나는 억제할 수가 없었다.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학생시절부터 무던히도 가고 싶었던 나라 아일랜드에는 그 유명한 민요 "아일랜드의 꽃파는 소녀"도 있고 영문학 사상 혜성 같이 빛나는 여러 작가의 나라이기 때문이었다. 또 우리 나라에서는 아일랜드에 대해서 별로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나

라의 소개 겸해서 한 주일 동안의 아일랜드 생활기를 적고 싶어진다.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아일랜드는 여러 면에서 우리나라와 비슷하다. 공업지대인 북부 아일랜드는 아직도 영국의 영토이기 때문에 농업을 위주로 하는 남부 아일랜드는 구라파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이다.

그리고 아일랜드가 영국의 최사슬 속에서 해방되고 독립을 쟁취하기까지는 긴 세월이 걸렸고 그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피의 기록”이다. 수도 더블린의 거리에는 독립투사들의 동상이 여기저기 있고 독립선언문을 비롯한 독립의 혈사(血史)가 아로새겨져 있다. 아일랜드는 표면상 영국과 우호관계에 있지만 마음속에 뿌리깊이 박힌 반영감정이 대단하다. 아일랜드 말은 켈트 어라 하며 영어와는 전연 다른 말이다. 영어는 칠판의 말이라 해서 공용어는 켈트 어로 되어 있다. 어린이들은 학교에서 켈트 말을 배우고 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는데 어른들은 영어 밖에 모른다. 그러기 때문에 호텔이나 거리에서는 영어가 잘 통해서 별지장이 없지만 공중전화의 게시판에는 켈트 어로 표시되어 있어서 아일랜드 말을 전연 모르는 나는 전화를 걸 수가 없었다. 호텔에 배달되는 신문도 그림이나 사진 밖에 볼 수 없어서 새삼스럽게 문맹(文盲)의 실음을 받았다.

어느 날 밤 호텔의 안주인과 같이 극장구경을 갔었다. 영화는 에딘버러를 배경으로 하는 러브 스토리인 영국영화였기 때문에 그런대로 이해가 가는데 뉴우스를 할 때는 나레이션이 켈트 어로 되어 있어서 무슨 소

리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다. 하도 답답해서 옆에 앉아 있는 30 여관의 여장부인 호텔 안주인에게 물어 보았더니 자기도 모른다고 하면서 팔을 크게 내 보이는 제스 추어를 하지 않겠는가? 아일랜드란 이런 묘한 나라다.

그러나 아일랜드는 아름답고 정다운 나라다. 사람들이 친절하고 특히 우리 같은 외국사람들에 대한 매너가 부드럽기 그지없다. 내가 미국에서 언제나 느꼈던 그 묘한 열등감 같은 것은 이 나라에서는 티끌만치도 느낄 수가 없었다.

다소 곤란했던 것은 어른들이 말하는 영어가 소위 아이리시이기 때문에 우리 나라 말로는 충청도 사투리처럼 느끼고 똑똑치 못하다. 기차를 타고 있으면 마치 우리나라 청주나 공주에 온 듯한 착각을 일으킬 정도다.

그리고 케네디 일가처럼 아일랜드에서 건너온 미국 사람을 아이리시 아메리칸이라고 부르는데 이 말은 사람이 좋고 약간 모자란다는 경멸의 뜻을 내포하고 있다. 그러나 케네디 일가의 사람들을 보면 모자라기는 커녕 너무 지나치게 똑똑해 보인다. 미국에 있을 때 “히이즈 아이리시”하면 바보 같다는 말이 된다는 것을 배웠지만 실지에 와 보면 그들은 바보가 아니라 인정 있고 다감한 민족이며 투지도 있는 훌륭한 사람들이다.

또 앞에서도 말했지만 그들은 처녀를 수출할만큼 게으른 국민도 아니다. 비록 아직도 구라파의 후진국이라고 하겠으나 근대화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었다.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 때문에 남북통일은 어렵다 하지만 남부 아일랜드의 공업화를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도처에서 볼 수 있었다. 이제 영국으로 나는 건너 간다.

스텝 매뉴얼 例集

A5版 · 220面 · 模造紙 · 洋裝 (會員)720원 (非會員)900원

우리 나라 圖書館에서는 스텝 매뉴얼을 作成하고 있는 圖書館이 거의 없다. 따라서 各圖書館의 業務는 統一性和 一貫性を 缺하고 있어 圖書館의 機能을 弱화시키고 있다. 따라서 스텝 매뉴얼例集을 編刊 普及시킴으로써 圖書館運營의 現代化를 促進코자 한다.

非圖書資料의 整理

A5版 · 240面 · 模造紙 · 洋裝 (會員)1,000원 (非會員)1,250원

新聞, 雜誌, 팸플렛, 필름, 슬라이드 등 非圖書資料는 圖書館資料로서 大端히 重要한 位置를 占하고 있다. 本書에는 이들 資料의 整理方法 및 保管利用에 관한 說明이 具體的으로 收錄되어 있다.